

羅福里에서 나온 二片的 櫛文土器는 서울附近的 無文土器地帶 例를 들면 高陽郡 楊州郡等 地域에서 發見되는 櫛文土器와 같으며 亦是 江畔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櫛文土器文化와 接觸을 갖기 始作한 石器時代末 期の 無文土器遺蹟에서 나오는 櫛文土器라고 할 수 있다.

(六一, 十二, 二日)

宿水寺址出土銅佛

秦弘燮

一九五三年 現紹修書院인 宿水寺址에서 數十軀의 銅製佛像이 發見된 일이 있는데(註) 여기 紹介하려는 二軀의 銅佛은 그와 同時에 發見되었던 것으로 發見者가 保管하고 있다가 最近에 國立博物館에 收藏된 것이다.

一、金銅如來立像 高一四·三cm

正面直立한 像으로 顔面은 整齊되었고 細眼正視하고 있으며 肉髻는 比較的 적다. 목은 若干 感覺을 주며 三道는 없다. 通肩한 法衣속에 左肩에 걸친 內衣가 보이고 두 팔에 걸친 法衣가 腹前에서 二量으로 U形을 그리다가 밑에는 左腋에서 흐르는 線이 오른쪽 밑으로 흘러 내려왔다. 衣端은 발목위에서 끊어졌고 그 밑으로 內衣가 발목까지 내려오고 있다. 右手는 施無畏印이고 左手는 指端이 切斷되었는데 아마도 捧鉢하고 있는 것 같아 藥師如來像같이 보여진다. 伏蓮臺座는 六角으로 十三葉의 細長한 單瓣蓮花가 있다. 背後에는 若干의 衣紋이 보이기는 하나 거의 背面表現意識이 없고 어깨 中央에 突起가 있어 그 끝에 작은 圓孔이 있음은 原來 光背가 具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鍍金이 많이 남아 있고 頭部가 若干 앞으로 쏠리고 腹部가 내밀린 側面觀은 新羅統一期の 佛像을 보는 것 같으나 三道가 없는 點이라든지 若干 筋目이라든지 下體의 衣端處理는 完全히 새로운 樣式으로 移行

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그 造成年代는 八世紀 前半에 두어야 할까 한다.

二、銅製如來立像

高一六·八cm

正面한 立像으로 肉髻는 比較的 크고 顔面은 옆이 모가나서 立方體같은 感覺을 준다. 顔面에 若干의 破損이 있다. 三道는 없고 右肩偏袒한 法衣가 斜線을 그리면서 발목위까지 내려왔고 그 밑으로 內衣가 보인다. 右手에는 捧珠하고 左手의 指端은 切斷되었으나 與願印임을 알 수 있다. 左膝을 若干 들어서 體重을 右脚에 실은 故로 右手와 右便腰部와의 接觸部가 이상하게 髳髳 튀어나왔다. 이것은 以上과 같은 姿勢의 軀도 있지만 全身에 甚한 火傷을 입고 있는 故로 그런데도 原因이 있는 것 같다. 前面 右半에서부터 右側面에 걸쳐 破損된 圓形臺座에는 八葉의 潤瓣 複蓮瓣이 있다. 背面的 表現은 前者와 같고 後頭部에 突起가 있어 亦是 原來 光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全體의 造形이 매우 素樸하고 三道가 없는 點이라든지

圓座 蓮瓣의 끝이 말리지 않은 點 등으로 보아 그 製作年代가 前者와 비슷할 것 같으나 先後를 따진다면 本像이 앞설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鍍金의 痕跡은 찾을 수 없으나 原來 없었는지 火傷으로 因한 溶解인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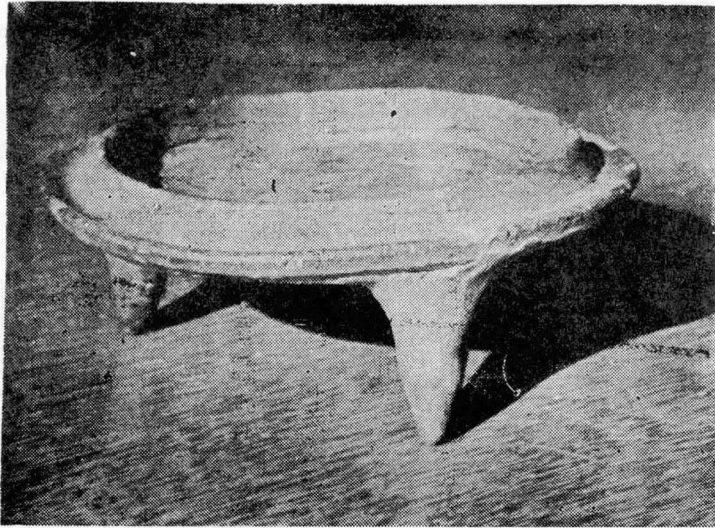
알 수 없다.

〔註〕金載元「宿水寺址出土佛像에 對하여」(震檀學報 第十九號 所收)

百濟陶硯의 또 한 例

鄭 永 鎬

新羅 百濟의 陶硯이 數例 本誌에 紹介된 바 있어 ① 이에 많은 注目을 끌어 오던中 지난 十一月 金聖瓚氏(서울師大附中校監)의 好意로



百濟時代의 陶硯一 例를 調査하였는데 그 形態와 製作意匠이 異例的이었으며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淡黑色으로 土質은 堅緻하며 圓盤形으로 된 身部를 下面에서 三脚으로 支撐하고 있는 形態이다. 上面에는 外廓이 周廻되었고 外廓보다 낮게(深一·二cm)全面이 磨面으로 되어 있으며 硯水를 貯藏하기 爲한 圓孔이나 或은 硯池도 없다. ② 外廓外側에는

마치 蓋를 덮었던 것 같이 데두리가 있으나 그것은 外廓을 손으로 빚어 올려서 생긴 손자욱으로 보인다. 外側端에서 下面으로 이르기까지는緩曲을 이루고 그 下面에서는 平坦하다. 三脚은 下面周圍를 三分하여 그 中心部에 附着시켰는데 모두 牛角形이다. 實測値는 高 五·六cm 낮은 곳 五·〇cm 直徑 一·三cm(磨面直徑 一〇·三cm) 脚 一·三·三cm 二·三·六cm로 大型은 아니나 完全品으로서 더욱 特異하게 생각되는 것은 三脚中 그 一이 他二보다 짧아서 硯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硯面및 硯全體가 傾斜되어 있는 點인데 아마도 이것은 硯池 代身으로 硯水를 담기 게 하기 爲한 意匠이 아닌가 推測된다. 이 陶硯은 原來 附中二年在學中인 朴琴錫君이 시골 祖父宅(忠南 扶餘郡 良化面 五良里 三一七)에서 發見하여 지난 十月 學校에 寄贈하여 지금 社生科教室에 貴重히 保管되어 있다. 한편 朴鵬培氏(朴君의 父)談에 依하면 此品은 隣近山麓에서出土되기는 오래前이며 以外에도 土器類가 多數 出土되었으며 隣接 밭에는 支石墓가 三基 現存하고 그 外古墳이 多數 散在하여 때때로 많은 土器가 出土된다는데 앞으로 特別히 이들 遺物의 蒐集이 注目되는 바이다.

註

① 洪思俊「百濟의 陶製硯과 石製硯」本誌 第二卷 第四號

朴日薰「新羅陶硯 三例」第二卷 第七號

② 本誌에 紹介된 他例에는 硯池 或은 硯水貯藏所가 附屬되어 있다.

新羅 角杯臺 一雙

洪 思 俊

今年 여름 어느 骨董商에서 蔚山郡 彥陽面出土라고 傳하는 表記한 土器를 보았다.

二個中에 한개는 三孔式이고 또 한개는 二孔式 角杯臺로 色같은 新羅土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深灰色이다. 三孔의 것은 形態가 角杯 三個를 三角形 三頂點에서 中央의 一點에 모이도록 構成되었으나 外面에서 본